2016 고객만족 & 대한민국 대표 BRAND 대상

각 산업 부문 별로 소비자(품질) 만족과 품질 및 기술혁신을 구현하여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의 초석을 다지기는 중소기업 제품 및 기술력을 조명하고자 본 지면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소비자 만족지수 1위 기업 및 제품'을 수록하고 성원해 준다면 향후 한국 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 할 것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리딩 컴퍼니(Leading Company)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오랜 노하우와 지식으로 땅 투자에 대한 성공신화 이어간다

(주)부자인베스트

돈을 버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돈을 버는 시스템만 구축되면 의외로 쉬운 일이 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가장 각광받는 투자로 인식되고 있다. 정당한 방법과 합법적인 방법 그리고 전략적인 투자만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수익은 없을 것이다. 특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하고 학습을 한다면 이른바 투자로 인한 리스트는 없을 것이다. 부지도 습관이다.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통해 정당하게 부자하고 이에 대한 댓가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좀 더 행복해 질 수 있다. 문제는 투기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까지 투기에 골몰하면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전문가가 있다. 자신만의 노하우와 전문성 그리고 정당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주)부자인베스트(www.buinvest.co.kr) 최미정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무엇보다 신뢰가 가는 대목은 그 역시 오랜시간 꾸준한 노력과 학습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그의 과거에서 이같은 이력을 살펴볼 수 있다. IMF 시절 위기를 맞은 최 대표는 대구에서 울산으로 이사를 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자연스레 접하게 된 부동산. 그리고 택지개발 성공사례를 접하게 되면서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갖게된다.

그리고 현재 울산 최고의 부동산 전문회사 인정받게 됐다. 소액 투자부터 시작한 최 대표는 적지 않은 성공을 거두면서 본격적인 컨설턴트 길을 걷는다.

지난 2011년 설립된 (주)부자인베스트가 인정 받는 이유는 이와같은 최 대표의 탄탄한 기초 실력으로 부터 다져졌다. (주)부자인베스트가 말하는 투자 성공 비법은 의외로 간단명료하다. 바로 투자 계획수립부터 자금 분석, 목표 수익 정하기, 관련법 지식, 서류의 정확한 판단, 땅 값이 오를 지역 발굴 및 선점방법, 그리고 돈되는 땅과 피해야 할 땅에 대한 분석이다. (주)부자인베스트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이것들로 최 대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자금이 부족하다고 싼 땅을 찾기보다는 가치있는 땅을 찾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치 있는 땅을 구별해 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관련 서류에 그 땅의 현재 가치와 미래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서류를 보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서류를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주)부자인베스트는 바로 이같은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서류 검토가 어느정도 끝나면 관련 기관 방문 역시 필 수 다. 최 대표는 "컨설턴트에게만 무조건 맡기면 안된다. 직접 관련 기관을 방문해 확인해야 하며 내가 투자할 땅의 인허가, 도시개발법 지정여부, 용도가 분명한 땅인지 확인 여부, 개발 이슈를 관련 기관을 방문해 확인할 것을 강조한다. 경영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이 있다. 이 역시 마찬가지다.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기 마련이다.

(주)부자인베스트가 주목하고 있는 곳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 포항 이진지구, 김해 내덕지구, 통해 신도시, 울산덕하지구 등 수많은 분양성공 사례를 이어가고 있는 (주)부자인베스트의 성공신화는 결코 신화가 아닌 오랜 학습과 전문성으로 만들어 졌다. (주)부자인베스트의 행보가 타 업체와 차별화 되는 것 역시 최 대표의 굳건한 투자 철학 때문에 가능했다는게 주위의 평가다. 이같은 노하우로 인해 (주)부자인베스트 최 대표는 최근 축구장 3배 크기의 호텔 부지를 매입하고 호텔 사업 진출을 본격 선언하고 나섰다. 호텔 사업 역시 부동산에 기초하고 있기에 (주)부자인베스트의 운영 노하우로 성공적인 미래가 예상된다. 현재 (주)부자인베스트는 300여명의 직원들이 있으며 고객의 투자 성공을 위해 불철주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 대표 역시 한 가정의 어머니로 또한 아내로 분주한 나날이지만 자녀들과의 소통만을 잊지 않고 있다. 아울러 가족에 대한 미안함 마음을 속이지 않는 어릴 수 없는 한 인간이다. 직원들과의 소통 역시 처밀하게 챙기고 있는 최 대표는 직원들과는 매일 복식호흡을 함께 하고 사내 웃음 치료사를 고용 직원들이 언제나 건강한 마음으로 그리고 항상 즐겁게 근무 할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최 대표는 부자다. 하지만 언제나 직원들을 위한 배려와 겸손의 자세로 한번 내 b은 맡은 끝까지 책임지는 의리의 CEO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최 대표는 "직원들의 평생 삶의 터전이 되어 함께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며 "시장의 흐름을 통해 좋은 부자처를 찾아내고 가장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때에 시기를 설정해 고객과 함께하는 (주)부자인베스트가 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12월12일 부자인베스트 최미정 대표가 제 11회 '2016 대한민국 나눔대상'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나눔대상은, 나눔과 사회공헌을 통해 사회통합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과 유공자를 표창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터뷰

Q. 성공 투자 비법은?

A. 성공투자를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서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지적도를 발급받아 토지의 거래관계,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실제로 투자할 장소의 땅을 밟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Q. 돈이 오가는 사업이다. 어떤 마음가짐인가?

A. 고객의 돈은 정말 소중한 것이다. 이런이는 자녀를 위해 모아둔 돈이고 노후 대책을 위한 돈이기도 하다. 그들의 돈이 곧 내 돈이라는 소중하고 가치있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한다. 또한 투자하는 이들에게 수익을 통한 기쁨과 만족감을 줘야한다. 그렇기에 철저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일한다.

Q. 투자 성공에 대해 정의를 내린다면?

A. 흔히 뉴스에서 보듯 투자로 인한 성공은 일부 특권층만 누리는 것은 아니다. 부동 종목의 선택과 방법, 본인의 투자 마인드 등이 잘 갖춰진 상태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성공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토지 투자다.

Q. 어떤 땅에 투자해야 성공 확률이 높나?

A. 아주 중요한 문제다. 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싼 땅을 찾는데 불편 쎈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용도가 분명한 땅, 주거지, 건축이 가능한 땅, 도로에 접한 토지, 주변에 오염시설 등이 없는 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Q. 특별한 투자 시기가 있나?

A. 먼저 시간이 있을 때 투자해야한다고 말하고 싶다. 투자란 여유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돈과 시간이 함께 소요되는 종목인 만큼 작은 자본이라도 그에 맞는 투자종목을 찾아 오랜 시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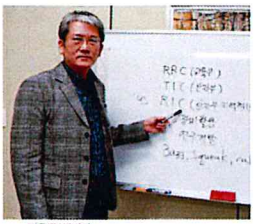
Q.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A. 예상한 대로 땅 개발이 진척될 때다. 또한 투자에 성공한 이들이 찾아올 때는 보람을 넘어 감동을 느낀다.

산학 협력 결정체 'RIC' 기술발전과 지역경제 향상

공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산학협력은 기업과 학교가 모두 윈-윈 하는 경영의 또 다른 기법으로 국내에서도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지식과 자본의 지원이 가능한 기업간의 산학협력은 미래에도 적극 개발하고 지원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지난 1990년대 해외에서 수학 후 귀국한 많은 이공계 분야의 고급인재들이 국내 대학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들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노력이 여대 정부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우수과학연구센터(SRC),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지역기술혁신센터(TIC), 그리고 지역혁신센터(RIC)가 그것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모두 대학의 자원을 활용해 기업지원과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중요 프로그램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다. 이중 RIC는 하드웨어지원 위주의 TIC와 연구지원을 주로 한 RRC의 기능을 합쳐 대학이 기업지원에 필요한 전방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산학협력 모형의 결정체로 진화하였고, 1995년부터 2008년 마지막으로 공주대 RIC가 선정되기 까지 전국 대학에 120여개의 센터가 선정되었다. RIC의 맏내인 공주대학교 RIC는 지난 8년간 매년 10개 정도의 기업 기술과제를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자동차 관련 부분에서는 국내 대학 중 최고의 입지에 놓여 있다. 8년간 센터를 이끌고 있는 전용두 센터장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은 RIC가 오랜 시간 특화분야의 연구와 과제 해결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무엇보다 한 분야의 집중적인 연구와 역량 집중을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스렉 제정 과정에 기여함으로써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나 내장재의 기술력을 높여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업체의 매출과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는 일등공신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용두 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국내 대학교에 RIC와 같은 장기적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국내에는 전국적으로 약 40여 대학 RIC센터가 활동하고 있으며, RIC는 정부지원과 민간부담(지자체 지원 포함)이 60:40의 비율로 사업비를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 내의 실질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조직으로서 RIC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며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했다. 연구자이기도 한 전용두 센터장의 이 같은 노력은 관련 기술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데 특히 충남의 산업 발전으로 인한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전국 자동차 내장부품 생산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충남의 자동차 부품 산업은 구심점이 필요하고 공주대학교 RIC가 거기에 있다.



전용두 센터장

경영혁신과 사회봉사 통해 소외계층에 빛을 비추다

양노진 MG 서광주 새마을 금고 이사장

경영혁신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조직의 개혁과 리더십이 중요하다. 지난 1965년 공직에 몸담은 후 봉사정신과 소명의식으로 새마을 운동을 통한 농촌주택 개량 등 농촌 근대화의 선봉장으로 활약해온 양노진 MG서광주 새마을 금고 이사장이 화제다.

지난 2000년 후배들의 길을 터주기 위하여 명예 퇴진으로 공직을 마친 양 이사장은 이후 광산 장학회에 참여 6년 동안 무보수로 봉사를 하기도 했다. 이같은 봉사정신은 그의 경영혁신에서도 잘 나타난다. 2009년 MG서광주 새마을금고는 P&A방식의 예적금 400억원과 대출채권 100억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선대 위변제금이자 미발생과 영업권 등 일부의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내실경영을 통해 2010년 모든 영업을 정상궤도에 올려 놓았으며 2011년 6억 4000만원의 수익 결과를 낳았다.

또한 1400억원의 공제사업도 달성하며 그 틈틈 평가 전국 2위를 기록하는 놀라운 경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취임 후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강화, 기초수급자에 대한 연말지원, 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 경로당과 독거노인에 소화기 지급, 지역골목 상권과 영세업자를 위한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한 결과 2013.10.1.공산구민의상 수상, 2012.7.26.올해의 존경받는 인물대상(시사포데이), 2012.9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뉴스메이커) 2014.4.7. 대한민국 가치경영대상(헤럴드경제), 2016.6.27. 대한민국 신창조인 대상(국민성공시대), 2016.12.5. 대한민국 창조경영대상(아시아뉴스통신)등의 수상을 받았다. 또한 매년 총회를 통해 회원 자녀들을 선발해 자체 지원하는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경영혁신과 봉사정신이 밑바탕이 된 이같은 행보는 지역 사회 발전은 물론 새마을금고 내에 서도 주목받고 있는 실정으로 양 이사장은 "앞으로도 MG서광주 새마을 금고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며 나눔의 정신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계층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노진 이사장

커피에 관한 모든 것 제조부터 창업 컨설팅 까지

(주)로스팅컴퍼니로움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주)로스팅컴퍼니로움(대표 이동희)이 최근 종합 커피 전문 컨설팅 및 원두커피 제조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로스팅컴퍼니로움은 커피용품 관련 장비 판매, 커피 전문점 창업, 컨설팅, 원두커피 제조, 로스팅, 원두 수출, 눈꽃빙수 파우더 생산, 바리스타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 특히 커피머신, 그라인더, 믹서 등 관련 장비 판매 및 렌탈사업은 해외 시장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 지역에서는 한국의 눈꽃빙수가 주목받고 있는데 (주)로스팅컴퍼니로움은 중국은 물론 라오스, 태국, 베트남 등에 해외사업 진행중이며 눈꽃 빙수점의 경우 중국 텐진의 텔리푸드와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에 다수의 매장을 보유한 키스키티와 함께 중국 주요 도시에 음료를 생태로 '로움' 눈꽃 빙수 점을 개설,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내 최대 유통 업체인 '메라'와 제휴 커피용품과 식음료 재료를 각 매장에 공급한다. 이같은 성과로 인해 올 상반기 6만 달러의 수출 기록을 세운바 있는 (주)로스팅컴퍼니로움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센터 사랑의 일터 지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직원 채용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앞장서고 있다. '로움' 커피의 최대 장점은 생두 보관일수는 로스팅 직후 1일이내에 배송하는 시스템을 적용해 최고의 맛을 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업자들을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관련 컨설팅 등 시스템을 도입한 (주)로스팅컴퍼니로움은 판매 상권 분석, 메뉴 결정 트렌드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해 제대로 된 창업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이동희 대표

아코디언 수업의 체계화된 시스템 150인조 오케스트라연주도 활발

한국아코디언아카데미

한국아코디언아카데미(www.accordion.or.kr)는 아코디언전문연주자 및 지도자 양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 1999년 예전하 예술감독에 의해 설립된 아코디언 전문교육기관이다. 한국아코디언아카데미 출신연주자들은 전국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 교수, 방과 후 교사, 복지회관, 문화센터, 교습소 등에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TV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함은 물론 뮤지컬 기악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아코디언의 강국 이태리와 러시아 대표 아코디언 기업 대표들이 한국아코디언아카데미를 방문 견학한 정도로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예전하 박사가 직접 권작한 표준화된 최상의 수업자료를 통해 전문 교육을 받은 국내외 음악대학 출신 전공 강사진의 체계적인 검증된 시스템으로 언제나 최고 수준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50세 이상에게는 악기를 무료로 대여해주는데 초보자도 3~6개월이면 연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수업 체계를 자랑한다. 지난 12월 4일에는 KBS홀에서 150인조 아코디언오케스트라 공연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공연의 경우 브로브 음악 연주를 위주로 아코디언을 통해 우리민족의 애환이 담겨있는 곡 들을 연주해 큰 찬사를 받았다. 예전하 예술감독은 러시안피콜로 오케스트라와 모스크바 챔버오케스트라, 런던 유스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국립국악원, 서울대, 동경 음악학교, 영국왕립음악학교, 러시아국립음악원에서 수학했으며 현재 한국 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아코디언오케스트라와 신포니에타음악 예술 감독겸 상임지휘자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예전하 박사는 "아코디언은 일반적으로 저품격의 예술장르악기로 인식되었고 선진국에 비해 냉대를 받아왔다. 그러나 아코디언은 다른 어느 악기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뛰어난 예술악기로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미 개척분야임이 확실하다"고 밝혔다.